

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
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



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

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

CONTENTS

목 차

요 약

/1/

I. 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주요 내용

/2/

II. 회원국 반응

/4/

1. 중국
2. 일본
3. 호주
4. 뉴질랜드
5. 싱가포르
6. 태국
7. 인도네시아
8. 말레이시아
9. 베트남
10. 필리핀
11. 미얀마
12. 캄보디아
13. 라오스
14. 인도

요 약

- (경과)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이 3차 정상회의(11.4, 방콕)에서 협정문 타결을 이룸
 - 총 16개* 참여국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
 - 인도와 내년 초(20.2월예상)까지 잔여쟁점을 합의하고 최종타결 예정
 -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,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
- (회원국 반응) 대다수 회원국이 협정문 타결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나 인도의 협정문 타결 미참여에 대해서는 아쉬움 표현
 - (중국) 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한 의의 및 성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RCEP에서의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
 - (일본) 목표했던 연내 최종 타결은 연기되었으나 2020년 인도를 포함한 정식 서명을 위해 노력할 것
 - (호주)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협정문 타결을 환영
 - (뉴질랜드) RCEP 협정문 타결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
 - (태국) RCEP 협정문 타결은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 중에 발생한 성공적인 결과
 - (인도네시아) RCEP의 조속한 최종 타결을 기대하며 인도의 합류를 기대
 - (베트남) RCEP은 베트남의 글로벌 통합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협정문 타결에 의의 부여
- 한편, 인도는 이번 RCEP 협정문 타결에 불참에 대한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협정 참여에 대한 여지를 남김

I

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전망

* 산업부 언론 보도('19.11.4일)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

1. 진행 경과 및 향후일정

□ (경과)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이 3차 정상회의(11.4, 방콕)에서 협정문 타결을 이뤄 최종 타결에 한발 다가섬

- 총 16개* 참여국이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

* 한중일, 인도, 호주, 뉴질랜드 + ASEAN(10개국) 등 총 16개국

< RCEP 협상 주요 진행경과 >

- ('12.11월) 동아시아정상회의(EAS) 계기 RCEP 협상 개시 선언
- ('13.5월) 첫 공식협상 개최
- (~'19.10월말) 28차례 공식협상, 7차례 회기간 수석대표 회의, 16차례 장관회의 진행
 - * '18.11.14 2차 정상회의 시 '19년 타결 목표를 설정
- ('19.11.4일) 3차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 회원국 협정문 타결 선언

□ (의의) RCEP이 최종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의 신남방 밸류체인 구축과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

- 우리나라 최초의 Mega FTA로 세계 인구 절반과 GDP 1/3 차지 거대 경제 블록과의 안정적인 역내·교역 투자 기반 확보 기대

* GDP 27.4조불(32%), 인구 36억명(48%), 교역 9.6조불(29%)('18년 IMF)

- 신남방 정책 이행의 핵심 기반 마련, 상품시장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·투자 분야 추가 개방을 통해 우리국민·기업에게 새로운 기회 제공

□ (전망) 인도와 내년 초('19.2월예상)까지 잔여쟁점을 합의하고 최종타결 예정

-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'20년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
-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,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

2. RCEP 협정문 주요 내용

- (최신 무역규범 확립) 한-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,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
 -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,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
 -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·특허·상표·디자인 등 지재권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
 - 중소기업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챕터를 도입하고, 정부조달, 경쟁 등 다양한 챕터를 마련하여, 해당 분야 투명성 제고
- (무역원활화 기반 마련)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,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
 -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*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
 - * 한-싱가포르 / 한-아세안 / 한-인도 / 한-호주 / 한-중국 / 한-베트남 / 한-뉴질랜드
 -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·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 강화
 - 아울러, 한-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 도입하여 기업들의 활용 편의성 증대
- (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) 한-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·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하여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
 - 금융·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, 금융 및 통신사업진출 기반 확보
 - 투자 분야에서는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, 한-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규범을 확보
- (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)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 기반을 마련
 -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간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마련

II

회원국 반응

* RCEP 회원국 중 한국과 브루나이(무역관 미소재지)를 제외한 14개국 대상

1. 중 국

□ (정부) 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한 의의 및 성과 대대적으로 홍보

○ (국무원) 최고행정기관 국무원 주최 기자회견 통해 성과 홍보

- 세계 최대 FTA 타결을 선언하고 "RCEP은 아-태 지역, 중국 및 세계의 경제무역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"고 언급
- "중국은 RCEP 협상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, 아세안은 구심적 역할을 했다"고 언급하며 중국의 역할 강조

○ (외교부) 서명은 내년으로 미뤄졌으나 '협정문 타결'만으로도 큰 성과

- RCEP은 참여국이 16개에 달하는 아-태지역 최대 규모, 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문 타결은 역내 산업밸류체인 융합과 경제 일체화를 촉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발언
- 참여국 공동 노력으로 큰 진전을 이룬 것이며 각국의 기대치와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"동북아 각국이 교역다변화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신호"라고 높이 평가

□ (언론) 중국의 주도적 역할 강조하면서 인도 참가 연기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○ (중국경제망) RCEP 타결은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한 표본

- RCEP 발효시 회원국들은 기업에 보다 좋은 투자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, 이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유무역 발전에도 표본이 될 것이라고 밝힘
- RCEP 타결은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큰 의미 부여하는 것이며 보호무역 주의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

- (제일재경, 중국일보망 등) RCEP 타결은 中の 적극적인 지지와 추진의 결과이며, 중국은 수입 확대에 기타 회원국에 기회 제공
 - 중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, 지도자들은 여러 장소에서 RECP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밝힘
 - RCEP 타결 후 더욱 많은 국가가 농산물·공업품·소비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될 것으로 이는 회원국에 기회를 제공하고 중국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할 것이라고 언급
- (환구시보 사설) 인도의 RCEP 타결 참여 연기는 유감스럽지만 의외는 아님
 - 인도는 RCEP 가입을 할 경우 국내 제조업이 받을 타격과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상품 유입을 지속적으로 우려해 왔다고 밝힘
 - 인도의 선택은 오로지 인도의 주권이자 경제 전략의 문제이며, 정치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인도의 참여 연기로 중·인 경제관계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

□ (업계) 회원국 대상 수출입 및 투자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 예상

- (캐주얼 의류 제조업체 S사) SNS 플랫폼에서 다수의 RCEP 회원국과 수출입 진행하고 있으며 RCEP 타결로 무역 장벽 해소가 기대되는바, 회사의 타겟시장 및 사업영역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
- (연해지역 소재 방직기업 A사) 최근 캄보디아, 베트남 등지의 생산기지 시찰하고 있으며 RCEP 타결로 중국기업의 동남아 진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힘
- (유색금속 생산업체 B사) 중국시장에서 생산원가 상승 등 요인으로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장으로 공장이전을 원하고 있다며, RCEP 타결로 동남아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중국기업에 유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

2. 일 본

- (정부) 목표했던 연내 최종 타결은 연기되었으나 2020년 인도를 포함한 정식 서명을 위해 노력할 것
 - (스가 관방장관) “인도를 포함한 16개국에서 2020년 협정 서명을 위해 일본이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”고 발언
 - (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) “일본은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의 조기 타결과 2020년 서명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”이라 밝힘
 - (니시무라 아키히로 관방부장관) “(인도를 포함한) 16개국에서 2020년 서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16개국에서 공유되고 있다”고 발언
- (언론) 인도의 참여를 촉구하는 사설 등이 다수 보도
 - (닛케이신문) “RCEP, 인도 참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라”
 - RCEP은 미국이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의 방파제를 다지는 의미가 있음. 국가자본주의로 일관하는 중국에 개혁을 촉구하는데도 도움이 됨
 - 단, 인도가 빠지는 RCEP은 존재감, 효과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음.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의 완전한 RCEP 실현을 희망함
 - (마이니치신문) “RCEP 타결연기, 인도는 참가 재고를”
 - 인도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규모의 효과가 저하되고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한 방파제 역할도 약화됨. 중국은 인도가 빠져도 상관 없다는 자세이나 이는 아시아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
 - 거대한 시장인 인도가 빠지면 인도의 시장개방을 전제로 각국이 자유화에 응했던 교섭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음
 - (요미우리신문) “RCEP 교섭, 틀 붕괴의 위기를 버틸 것인가”
 - 인도가 빠진 채 RCEP이 발효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본은 RCEP을 통해 중국이나 한국에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전망됨

3. 호 주

- (정부) RCEP으로 인해 회원국 간 경제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협정문 타결을 환영
 - (사이먼 버밍엄 호주 무역부 장관) “RCEP은 호주 기업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으로 통합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”이라 언급
 - 버밍엄 장관은“RCEP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성장함에 따라 해당 거래는 호주 전역의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 것”이라고 주장하며
 - “호주는 또한 인도가 이 협정에 서명 할 수 있도록 주요 이슈에 대해 협력함으로써 RCEP의 가치를 더욱 확대 할 것”이라 강조
 - (모리슨 총리) 최종 합의를 통해 인도가 RCEP에 합류하기를 기대
 - 모리슨 총리는 인도의 모디 총리는 RCEP을 지지하고 있으나, 현재 인도 기업들이 RCEP 하에 중국 제품 수입의 홍수를 우려하고 있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인도의 합류 여부는 내년도 합의에 달려 있다고 언급
- (언론) RCEP 협정문 타결은 긍정적이나 인도 불참은 아쉬워
 - (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) 세계 경제의 약 1/3을 차지하는 가장 큰 무역 협정 타결된 것을 환영
 - 단, RCEP은 중국과 인도가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이라는데 의의가 있었으나 마지막 인도의 철수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
 - (The Guardian) 멜버른 대학 아시아 링크 외교 대표 멜리사 콘리 타일러와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“호주의 RCEP 참여는 세계 교역 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성명서로서 상징적이며 중요하다”이라고 언급하며
 - 단, “RCEP이 다른 참여국들에 비해 보다 호주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”이라고 첨언

4. 뉴질랜드

- (정부)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진전
 - (아던 총리) 정부공식 발표 채널을 통해 RCEP 협정문 타결 홍보
 - RCEP 협상타결 국가 중에는 뉴질랜드 10대 교역 국 중 7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뉴질랜드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며 동시에 뉴질랜드 내수 경기 진작도 기대한다고 밝힘
 - 뉴질랜드는 인도의 협정문 타결 불참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인도의 경제시장을 열기위한 협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언급함
- (언론) 태평양지역 15개국의 빅딜 타결 환영, 그러나 인도 참여 연기는 아쉬워
 - RECP 무역협정 체결은 34억 명의 인구와 전 세계 GDP의 40%를 커버하는 빅딜로 뉴질랜드를 위해서도 중요한 협상 타결임
 - 그러나 인도가 결정을 2020년까지 유보하면서 13억 인구와 2.9조 달러에 달하는 시장의 개방을 놓친 협정이라 평가
 - 인도라는 큰 시장이 열리는 기회가 늦춰진 배경으로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중국과 국경을 맞댄 인도가 중국의 경제 지배력 확대를 우려한 결정 유보로 볼 수 있다고 전함
- (업계) 현지 사업가 및 투자자들에게 의미 있는 협상
 - RCEP 회원국 간 교역에 있어 연속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신흥시장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이 마련됨
 - RCEP 회원국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수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수출입 프로세스와 관련한 불필요한 절차 등은 줄어 국가 간 교역이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
 - 특히 뉴질랜드는 낙농업 등의 1차 산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이 주요한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의 수출 교역량이 늘어날 것에 대해 산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음

5. 싱가포르

□ (정부) “인도가 빠졌으나 대단한 성과”라고 평가

- (리셴룽 총리) 11월 4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가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은 입장을 이해하며 2020년 정식서명 때 RCEP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
- (찬춘신 통상산업부 장관) 이번 아세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부분 회원국들이 협정문 타결에 동의했으며 향후 몇 개월 내 최종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함

□ (언론) 인도의 참여 연기는 아쉬우나 이번 협정문 타결은 옳은 결정

- (The Business Times) 이번 타결에서 인도의 부재는 RCEP 협약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나, 다른 15개국의 어려운 절충을 이뤄낸 결과인 만큼 다자간 무역체제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큰 도약
 -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과 전 세계적인 무역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상당히 천천히 진행되어 온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음
 - 특히, RCEP이 동북아·동남아의 주요 경제 및 교역 상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중국은 가능한 빨리 이 협정을 발효시키려 할 것이라고 언급함
- (StraitsTimes) RCEP 협정문 타결은 미국에게 역내 투자 및 교역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지키도록 경각심을 줬다면서 인도 또한 무역 확대와 안보를 위해서라도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

□ (업계) 인도의 RCEP 참여 연기 관련 아쉬움 표명

- (DBS그룹) 이번 협정문 타결에서 인도가 참여를 연기한 데 대한 아쉬움 표명하며 향후 인도의 RCEP 참여를 위해서는 무역 자유화를 위해 단계적 통합이 동반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언급

6. 태 국

- (정부) 아세안 의장국으로서의 태국의 역할 강조하는 동시에 인도의 불참에 대한 의견 제시
 - (주린 락사나위싯 태국 상무부 장관) RCEP 협정문 타결은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 역할 수행 중에 발생한 성공적인 결과
 - (오리몬 수타위탐 태국 상무부 무역협상국장) 인도가 RCEP 협상에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며 자국의 우려 품목에 대한 세율 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
- (언론) 인도 참여 연기에 대한 해석 등 학계 논평기사 위주의 보도
 - (앗 피산와닛 박사, 태국상공대학교 국제무역연구소) 인도의 이번 협정문 타결 참여 연기 사유를 3가지로 분석
 - 첫째, 인도는 현재 15개의 RCEP 협상국을 상대로 1,00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은 중국으로부터 발생
 - 둘째, 인도의 RCEP 협상 주요 관심사는 노동시장 개방을 통하여 고급 기술을 보유한 IT기술자들을 아세안(ASEAN) 국가로 송출하는 것이나 이 분야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 작용
 - 셋째, 협상국 간의 수입관세 면제(0%) 인하 시점까지 시한이 촉박한 것에 대한 부담감
 - (Nation Multimedia Group) 인도의 참여 연기는 정치적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
 -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의 거대 야당인 국민 의회파와 주요 노동조합의 RCEP 가입 반대에 자유로울 수 없음
 - 인도는 'Made in India' 정책을 추진 중으로 개방으로 인한 수입상품의 유입 보다 외국인의 인도 현지 투자를 더욱 환영

7. 인도네시아

□ (정부) RCEP의 조속한 최종 타결을 기대하며 인도의 합류를 기대

- (아구스 수빠르만또 무역부장관) RCEP이 아세안 지역 GVC 개편과 동시에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RCEP이 속히 최종 타결되기를 희망
 - 또한, 이번 협정문 타결에서의 인도 미참여는 인도네시아의 RCEP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, 인도의 재참여 및 협정문 동의에 대한 기회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
- (마헨드라 시르가르 외무부 차관)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의 RCEP 합류를 기대하고 있으며, 인도네시아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모디 수상 또한 RCEP 참여 희망을 언급했다고 함
 - 당시 모디 수상은 RCEP 협상은 인도를 포함하여 지속될 것이며, RCEP의 16개 전 회원국은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함

□ (언론) RCEP 협정문 타결은 긍정적이나 인도의 참여 필요성 언급

- (Bisnis Indonesia) RCEP 협정문 타결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 영향
 - RCEP의 15개 회원국은 20개의 챕터로 구성된 협정문의 내용에 동의했으며, 2020년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
 - RCEP의 체결은 회원국의 다자무역시스템 강화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- (Antaranews) 인도의 참여 여부는 RCEP 최종 타결에 영향을 미칠 것
 - RCEP 15개 회원국은 협정문에 동의했음을 선언했으나 인도의 경우 동의하지 못한 중대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임

-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인도의 입장은 RCEP 최종 타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하며 인도가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이유는 둔화되는 경제성장 및 자국 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

□ (업계) 인도의 협정문 타결 미참여에 대한 아쉬움 다수 언급

- (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) RCEP은 인도네시아가 미-중 무역분쟁과 침체되는 글로벌 경기로부터 받는 압박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RCEP 협정문 타결 동의는 인도네시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RCEP이 포괄적 경제협정으로 회원국간 협정 규모 및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임
 - 베니 협회장은 인도가 RCEP에 다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데 이는 인도의 입지가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언급함
- (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) 인도의 RCEP 참여 연기 사유를 분석하여 인도의 재참여를 유도하고 실패시 인도와 양자 협정 체결 검토할 필요
 -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인도가 RCEP에 재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참여가 시장 확장을 보장하기 때문임
 - RCEP 탈퇴 희망 사유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인도의 RCEP 재참여가 실패할 경우 인도와 양자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
- (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) 인도의 RCEP 탈퇴시 인도의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대응 필요
 - RCEP 협상 초기에 인도네시아의 팜오일(CPO) 업체의 수출활동을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 바 있음
 - 인도의 RCEP 탈퇴는 팜오일 수출과 관련하여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, 인도의 관세장벽보다는 비관세장벽이 더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필요

8. 말레이시아

□ (정부) RCEP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이뤄낸 성과

- (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) 말레이시아는 RCEP 참가국들과 협력하여 2020년에 서명 예정인 RCEP 협상을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음
 - RCEP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한 말레이시아 산업, 중소기업, 고용에 기회를 제공할 것
 - RCEP 협정문 타결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줌

□ (언론) RCEP 회원국 간의 교역 확대 등 긍정적 효과 예상

- (IHS Markit) RCEP은 마-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국가들이 RCEP 회원국 간의 교역을 더 쉽게 만들어 줄 것임
 - 2020년 서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협약은 참여국들 간의 투자 흐름을 촉진할 긍정적인 이니셔티브를 제공할 것
 - 인도가 RCEP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는 인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(ISEAS-Yusof Ishak Institute) 합의문 내용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득실이 무엇인지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긍정적인 효과 예상
 - 말레이시아는 작고 개방적인 경제이기 때문에 무역이 매우 중요함. RCEP은 말레이시아의 타국 접근성을 높여주고,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

□ (업계) RCEP 정식 타결에 대한 조속한 추진 희망

- (말레이시아 제조업자 연맹) 말레이시아 제조업자 연맹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, 509명의 응답자 중 40.7%가 RCEP 서명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

9. 베트남

- (정부) RCEP은 베트남의 글로벌 통합 노력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협정문 타결에 의미 부여
 - (트란 텡 안안 산업무역부 장관) 전 세계의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RCEP은 베트남의 글로벌 통합 노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
 - “인도를 제외한 각 회원국이 무역 협정의 최종안 초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, 각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대화를 마쳤다.”고 언급
 - 한편, “베트남은 2020년 아세안 의장으로서 RCEP 회원국 및 지역 간의 조화로운 균형을 보장하는 교역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첨언
- (언론) RCEP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견해 피력
 - (doanh nghiep hoin hap) RCEP 발효시 베트남 기업에 더 많은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무역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 - 또한, 통관절차 규정 통일화와 비관세장벽 제한 및 무역촉진과 관련된 제도 발전 예상
- (업계) RCEP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 크나 반대 의견도 존재
 - 베트남 업계 대다수는 RCEP이 거대한 시장을 창출하고 베트남 기업의 수출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특히, 물류, 통신서비스 및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시장분야의 개방이 확대된다고 기대
 - 그러나, 일부 기업은 RCEP이 회원국 간 경쟁 과열 등의 이유로 수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

10. 필리핀

- (정부) RCEP 타결에 따른 필리핀의 경제효과 강조하며 기대감 표시
 - (산업통상부 라몬 로페즈 장관) RCEP 타결 시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아 필리핀 제품 수출 시 이점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제조업, 에너지산업, 기술 기반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
 - 또한,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 전 세계 다양한 경제권 및 대륙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
- (언론) 일본, 한국, 중국 등과의 교역을 통한 수혜 기대
 - 아시아태평양대학 George Manzano 국제경제학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, RCEP이 회원국에 동일한 규범을 적용해 하나로 묶는 것도 있지만, 한-중-일이 RCEP을 통해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언급
 - RCEP 타결 시, 필리핀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시장에 더욱 쉽게 진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일본, 한국, 중국 등 필리핀의 주요 교역 국가와의 거래가 더욱 쉬워질 것
 - 하지만, 무역수지 적자국인 필리핀 입장에서는 RCEP 타결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으며 필리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으로 부족한 자본금, 기술력 부족, 선진국의 높은 기술 규제 수준 등을 제시
- (업계) 타결은 환영하나 인도가 RCEP에 불참할 경우 필리핀-인도 교역 확대에 불리
 - (필리핀 수출자 연맹) 최근 필리핀과 인도 양국 간 교역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RCEP에 인도가 불참하게 되면 필리핀과 인도간 교역 확대에 불리할 것
 - 인도의 RCEP 불참이 확정될 경우 특히 필리핀의 전자제품 및 원자재 등의 대인도 수출 확대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
 - * 2018년 필리핀의 대인도 주요 수출품은 전자제품(2억 4750만 달러), 구리류(6926만 달러), 공산품(6147만 달러), 금(4675만 달러), 광물(3151만 달러) 등

11. 미얀마

- (정부) RCEP 회원국과의 교역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 표명
 - (미얀마 투자 및 대외경제관계부) RCEP에는 한국, 일본, 중국, 호주, 싱가포르 등 글로벌 주요 시장이 다수 포함되어 미얀마의 교역 및 투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 예상
 - 특히, 중국 및 인도 등 미얀마 주변의 대규모 시장을 보유한 국가들이 협상에 포함되어 있어 미얀마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
 - 한편, 미얀마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므로 RCEP 체결 협상에 특별대우 (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)를 받고 있음을 강조
- (언론) 제조업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 표명
 - (7Day Daily) 미얀마는 개발도상국이므로 특별대우를 받고 있어 RCEP 최종 타결 시 얻는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이며, 특히 한국으로 의류 수출 시 특혜 관세가 적용되므로 많은 섬유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
- (업계) RCEP 타결을 인지하는 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나 관련 정보를 잘 모르는 기업이 대다수라며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
 - (주방용품 수입업체 NTS Myanmar) RCEP 발효시 외국인 방문 증가로 인해 관광업 및 요식업 분야가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 확대 계획 언급
 - (화장품, 건축자재 수입업체 Rising Luck) RCEP 협정문이 타결 되었다는 내용은 뉴스 등 언론에서 봤으나 체결시 수출입 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밝힘
 - 현재 RCEP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기업이 대다수이므로 미얀마 정부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

12. 캄보디아

□ (정부) RCEP 협정문 타결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

- (훈센 총리) "RCEP은 자유무역을 촉진할 것이며, 국제 경제 번영에 있어 핵심 요소"라고 언급하며 높게 평가
 - RCEP 협정은 협정 국가들의 의지를 반영한 "현 세계경제 정세(자국 경제 보호주의 강화)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적 메시지"라고 높이 평가
 - 또한, "RCEP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특히 저개발국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협상이 될 것"이라고 언급

□ (언론) 기대감과 더불어 캄보디아의 산업 경쟁력 미숙으로 인한 우려 표명

- (xinhuanet) BELTEI International University의 조셉 매튜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"RCEP으로 인해 캄보디아, 라오스, 베트남, 미얀마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 것"라고 언급
- (VOA khmer) 캄보디아가 아직 협정국 대비 경쟁력(생산성)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RCEP 협정 타결에 대한 우려 표함
 - "현재 주변 국가들에 비해 무역 적자가 크고 노동자의 경쟁력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 협정은 오히려 캄보디아 경제에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"고 기사에 언급
 - 현지 경제 연구원 Nget Chou의 언급을 빌리며 "캄보디아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이 낮은 제품이 주력 제조업 동력임을 고려할 때 RCEP 협정의 회원국과는 누릴 수 있는 이득이 차이가 난다"고 주장

□ (업계) RCEP에 대한 기대와 비즈니스 환경 미숙에 대한 우려 공존

- (Asian Vision Institute) "RCEP 국가로부터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즐길 수 있을 것"이라며 "RCEP에서 기회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비즈니스 관습의 개혁이 필요하다"고 강조

13. 라오스

□ (정부) 라오스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은 유보

- 라오스 정부는 RCEP 협상을 진행 중인 단계로 인식하고 있어 협정문 타결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은 없음
 - 라오스 RCEP 담당부처 산업부 무역정책국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에 따르면, 라오스 정부는 RCEP을 아직 인도와의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로 보고 있어 공식입장을 발표할 수 없다고 함
- * 라오스 산업부 무역정책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가장 최신 RCEP 정보는 올해 3.14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었던 실무협상이 전부 (11.7 기준)

□ (언론) RCEP 협정문 타결에 대한 반응 없음

- (Vientiane Times) RCEP 체결이 2020년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기사를 게재했으나 협정문 타결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 (11.5일 기준)
- 동사는 인도의 미협조로 체결이 지연되었다고 밝히며, RCEP이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인도 정부의 입장을 언급함

□ (업계) 협정문 타결에 대한 반응은 없으나 RCEP 발효에 대한 기대감과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 존재

- (건설 및 건설자재 유통 H사) RCEP 타결 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제품에 대한 수입 기대와 동시에, 라오스 중소기업이 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를 포함
 - 동사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 따르면, 동사는 RCEP 발효 시 RCEP 회원국으로부터 양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포함
 - 동시에, 작은 라오스 시장과 영세한 규모의 라오스 기업들이 이웃 국가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도 언급

14. 인 도

- (정부) RCEP 참여 연기에 대한 정부 및 업계 입장 표명하고 향후 참여 검토 의사 언급
 - (모디 총리) 인도의 RCEP 참여 연기 이유는 “타결된 협정문에 인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”이라고 밝힘
 - 모디 총리는 “인도의 농민, 무역 및 기업인 역시 RCEP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, 각 이해관계자는 RCEP으로 인해 예상되는 인도의 이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”라고 언급
 - (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장관) “협상과 토론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으며, 인도의 산업 성장 및 시장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,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을 것”이라며 향후 인도의 RCEP 참여 여지를 남김
- (언론) 이번 RCEP 미참여 이유에 대한 분석 위주의 보도
 - (인디아 투데이) 인도가 RCEP 협정문 타결에 참여하지 않은 5가지 이유를 ① 인도 경기침체, ② 무역적자, ③ 자국 농민 및 기업보호, ④ 기존 FTA 체결의 경험, ⑤ 중국 견제 때문으로 분석
 - 첫 번째 배경으로는 GDP 성장률이 5분기 연속 하락하는 등 인도 경기침체 현상을 꼽았으며, 두 번째로는 15개 RCEP 참여국에 대한 인도의 무역적자가 최근 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난 것을 언급
 - 또한 현재 인도의 제조 및 서비스 산업 분야가 최근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RCEP를 통해 중국 및 아세안 국가의 제품이 밀려든다면 인도 산업과 농민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고 밝힘
 - 특히 한국을 포함한 과거의 FTA 체결이 협약 상대국의 對인도 수입은 크게 증가시키는 것에 반면 인도의 수출은 그다지 긍정적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

- 또한 상대국으로부터 급작스러운 수입 증가 시 자동 발효되는 무역 보호조치 관련 조항이 협정 타결문에서 최종 제외되면서, RCEP 참여 연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

□ (업계) 전반적으로 정부의 RCEP 참여 연기 결정을 지지

- (인도 자동차 B사) 금번 RCEP에 관한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하나,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존의 한국, 일본, 아세안 FTA가 인도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임
- (인도 섬유 C사) 만약 확실한 산업 보호가 전제될 수 있다면, RCEP도 좋은 협약이 될 수 있을 것
- (인도 낙농업 A사) 더 강한 인도를 만들기 위한 모디 총리의 리더쉽에 감사드리며, 이번 결정은 인도 내 1억 명이 넘는 낙농업자들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
- (인도 진출 한국기업 A사) 인도의 높은 관세장벽을 고려 시, RCEP 체결로 한국산과 중국산이 같은 양허 혜택을 받는 것보다 현재처럼 한-인도 CEPA를 통해 한국산만 협정 혜택을 받는 것이 진출기업 입장에서는 더 이익

□ (기타 특기사항) 인도 정계 및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인도 정부의 RCEP 참여 연기 결정에 긍정적인 평가

-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(BJP)은 RCEP 협정문이 인도의 주요 이슈 및 요청사항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모디 총리의 RCEP 미참여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힘
- 전인도무역협회도 최근 상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인도가 RCEP에 참여한다면, 인도의 전반적인 산업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을 이미 피력한바 있음 /끝/

작 성 자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|
| ▪ 베이징무역관 | 윤보라 |
| ▪ 도쿄무역관 | 강민정 |
| ▪ 시드니무역관 | 전희정 |
| ▪ 오클랜드무역관 | 박성진 |
| ▪ 싱가포르무역관 | 이정현 |
| ▪ 방콕무역관 | 김민수 |
| ▪ 자카르타무역관 | 허유진 |
| ▪ 쿠알라룸푸르무역관 | 오유진 |
| ▪ 하노이무역관 | 김미혜 |
| ▪ 마닐라무역관 | 강지숙 |
| ▪ 양곤무역관 | 류태현 |
| ▪ 프놈펜무역관 | 조명경 |
| ▪ 비엔티안무역관 | 김고은 |
| ▪ 뉴델리무역관 | 최명례 |
| ▪ 통상지원팀 | 박영훈 |

Global Issue Paper 19-101

RCEP 협정문 타결 경과 및 회원국 반응

발 행 인 | 권평오
발 행 처 | KOTRA
발 행 일 | 2019년 11월
주 소 |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
(06792)
전 화 | 02-1600-7119(대표)
홈페이지 | www.kotra.or.kr
문 의 처 | 통상지원팀
(02-3460-7508)
I S B N | 979-11-6490-081-7 (95320)

Global Market Report

kotra

Korea Trade-Investment
Promotion Agency